

언론 사람

06
2020
VOL.240



04 인터뷰 人+人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기모란 위원장

06 Newmedia of the World

알고리즘 권력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의 신조류

08 세상사는 法

범죄보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12 이달의 시

청녹색,
우리가 아껴야 할 선량한 색상

- 04** 인터뷰 人+人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기모란 위원장
- 06** Newmedia of the World
알고리즘 권력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의 신조류
- 08** 세상사는 法
범죄보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 10** 돌보기
천하 경영의 포부

- 12** 이달의 시
청녹색, 우리가 아껴야 할 선량한 색상
- 14** 단어의 증력
고치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불편할 진실,
다크 워터스
- 18**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흥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Evgeny Karandaev
 <Rose on Wooden Table>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물머리의 이른 새벽녘, 사공은 노를 저어 강을 건넌다.
물은 여전히 멀고, 등 뒤로 뜨는 태양은 뜨겁다.
살기 위해 젓는 노질은 고단하다.
그러나 물은 닿지 못할 곳이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저어가자.
그 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손을 맞잡고, 등을 맞대고 살아온 인류에게 ‘언택트(Untact)’ 상황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미증유의 사태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방의학 전문가 기모란 교수는 뉴노멀(New Normal) 상황에서도 공조와 연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Q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응에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중요한 문제예요. 감염을 관리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거든요. 예전 메르스 사태 초반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과 2주 만에 확산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정보를 공개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당시 초기 대응과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이후 1급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한다고 법에 규정했죠. 유럽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유럽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에볼라 환자의 얼굴과 환자가 갔던 레스토랑 등을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거죠. 얼마 전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한 것은 클럽, 길거리 등 여러 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다섯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문 장소를 한꺼번에 발표해서 최대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거든요.

Q 이태원 집단 감염은 우리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A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1차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너무 적기도 하고,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한데, 임상시험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자칫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올 가을 인플루엔자와 맞물리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 백신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나라에 백신을 보낼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미국도 일시적으로 외국 의사면허자를 허가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도 완화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인도, 아프리카 등 의료가 취약한 나라의 의료인력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의료 인력을 서로 가져오기 위한 경쟁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의 6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지방은 더 열악합니다. 이번에 이탈리아는 의대생들의 졸업 시험을 면제해주고 바로 코로나19 현장에 나가도록 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니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Q 앞으로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A 예방의학과 같은 기초 분야는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일부 사립의과대학에서는 예방의학 전공의 월급은 못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바꿀 필요도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처방받는 약이 고정적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 환자분이 병원에 온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동안 진료받고 있던 병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가족이 약을 대리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으로 진료를 보면 진료 시간이 3배 정도 길어진다고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한 시스템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죠.

Q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언론이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A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사회부, 경제부 등 모든 파트에서 취재 요청이 오죠. 그런데 기본적인 상황을 너무 모르거나 애매하게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의학전문기자가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언론이 보건의료 분야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학교 개학 이후 환자가 폭증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개학 이후 환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 환자가 폭증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자 집단에서 폭증한 거였어요. 또한 치료제나 백신이 곧 나올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지요. 정확하게 취재를 하지 않고 한 언론사에서 쓴 기사나 외신을 그냥 받아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각 나라의 의료나 공중보건의 수준은 물론, 외교정책, 경제정책이나 국민성과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에서 발생한 환



자의 수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더 넓은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해주셨으면 해요.

Q 언론사와 독자들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질병과 감염 대비에는 '사망을 줄이는 대응'과 '발생을 줄이는 대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망을 줄이는 대응은 의료기관이 합니다. 증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환자를 빠르게 선별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죠. 발생을 줄이는 대응에서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병원 감염을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접촉자를 조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동참입니다.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손 깨끗이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를 통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감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다른 나라처럼 락다운(Lock Down)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마음을 합쳐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42.195km 중 이제 한 5km 정도 온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죠. 보통 감염병은 대비하고, 유행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고 회복 단계가 지나면 종료되는데, 코로나19는 대응 후 장기전 대비를 해야 하는 질병이 될 겁니다.

지금도 회복이 아닌 소강상태예요. 이때 장기전을 대비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감염병 연구와 인력을 확대해서 가을 2차 유행 또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올 수 있는 겨울 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두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참고 서로 양보해서 발생을 막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 권력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의 신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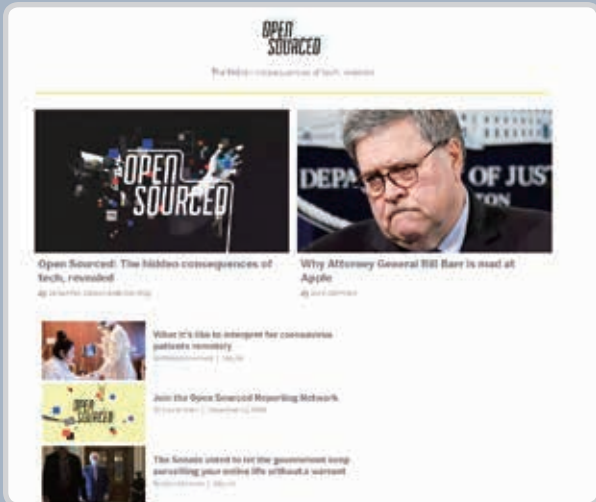
사진출처 : 더 마크업(The Markup)
<https://themarkup.org/2020/02/25/editor-letter-julia-angwin>

올 초 등장한 ‘더 마크업(The Markup)’은 신선함 자체였다. 내부 진통으로 창간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기사를 보며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교과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더 마크업 방법(The Markup Method)’이라 이름 붙인 취재·보도 프로세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를 당겨보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다. 구축(Build)-방어(Bulletproof)-결과 공개>Show our work)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기사를 발행하는 과정은 마치 권위 있는 학술지의 게재 절차에 비견할 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미국 정치 캠페인 이메일이 구글 Gmail에서 자동 분류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들춰낸 첫 번째 프로젝트를 비롯해 미국 자동

차 보험회사 올스테이트(Allstate)의 보험료 가격설정 모델에 젠더,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더 마크업 방법’을 준수했다. 이를테면, 정치인이 발송한 이메일이 Gmail 분류 알고리즘을 거쳐 스팸으로 향하는 비율을 도출하기까지, 모든 분석 과정을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각 후보자 간, 정치 그룹 간 스팸 비율의 차이도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메일 분류 알고리즘이 유권자의 공평한 정보 획득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탐사보도로서의 가치도 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기사 자체를 복사해갈 수 있도록 재발행(Republish) 기능도 제공했다. 과학적 방법론의 ‘재현 가능성’과



사진출처 : 오픈소스드(Open Sourced)
<https://www.vox.com/open-sourced>

지식의 결합과 공유, 동료 비판을 어느 언론사보다 귀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더 마크업은 이렇듯 극단적 투명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그들 저널리즘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는 뉴스 생태계의 위기를 투명성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는 데이터 저널리스트와 엔지니어의 탄탄한 협업이 전제돼 있었다.

성역처럼 남아있던 기술 권력들 그리고 디지털 권력을 작동시키는 '블랙박스' 알고리즘들은 더 마크업의 투명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방법론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해체되고 있다. 투명성은 감시자의 확대로 이어지며 제2, 제3의 비판 보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내 대형 IT 기업들의 알고리즘 권력을 인상 비평 수준에서 보도하는 국내 언론과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기술 권력이 집중돼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도전은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더 마크업 외에도 복스미디어 산하 '레코드(Recode)'는 '오픈 소스드(Open Sourced)'라는 신규 채널을 열었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갖고 있는 각종 신화들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파헤쳐 깨트린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을 오픈소스드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술 권력을 감시하고 있

다. 이들은 더 마크업과는 달리 쉬운 설명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가 선보인 '프로토콜(Protocol)'은 실리콘밸리를 워싱턴DC처럼 접근하겠다며 출범한 버티컬 미디어(Vertical Media)다. 이들은 창간 일성으로 기술 비평의 대상이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설계한 사람이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는 프로토콜의 보도를 거치면 회의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의사결정 이면에 개입하는 워싱턴DC와 실리콘밸리의 결탁도 이들의 주된 보도 영역이다.

중심 권력의 행위자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면 그것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의 접근법도 바뀌어야 한다.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이라는 기술 권력의 언설 앞에 좌절과 무력감만을 표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로서의 게으름을 인정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특정 알고리즘과 그 모델의 한계를 추적하는 역공학 방법론은 저널리즘이 학습하고 수용해야 할 과제이자 책무다.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을 발견하고 그것과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훈련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알고리즘은 완벽하고 무결하다'는 신화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더 마크업과 오픈소스드, 프로토콜과 같은 기술 감시 언론이 국내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신 받아쓰기로는 권력 감시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다.



사진출처 : 프로토콜(protocol)
<https://www.protocol.com/>

범죄보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언론에서 범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동 성폭행 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습득하게 되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자. 기자는 취재를 위해 성폭행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인들을 탐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피해자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왜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성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피해자 가족의 건강과 직업, 별이는 어떤지, 피해자의 평소 교우관계는 어땠는지, 또 피해자가 평소 어떤 음식과 노래를 좋아했는지도 알게 될 수 있다. 기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 가지 사실을 전부 기사에 실지는 못할(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어떤 사실을 취사선택해야 좋은 기사가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좋은 기사란, 사실 너머에 비치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상기시키고,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계기를 제공하는 기사일 것이다. 따라서 사명감이 있는 기자라면, 알게 된 천 가지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 사실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취재 사실 중 상당수는 보도가치가 없다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보도가치를 인정받은 나머지 절반은 보도할 수 있는가. 가령 피해자인 아동의 가정환경이 열악했다고 해보자. 평소 부모들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 벌이가 시원치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양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은 방치되어 평소 학교생활도 문제가 많았고, 해당 범죄도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건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회 구조적 실태를 지적하고,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성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해도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징이 될 만한 요소를 모두 지우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판례가 특징의 판단 기준을 사회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사람을 아는 주변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될 만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각해본다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는 것만큼이나, 보도가 필요한, 그리고 보도해도 좋을 사실을 선별하는 것도 기자라는 직업이 가진 어려운 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제의로 접근하여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공개해버린다고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얻어냈다.

그리고 이것을 텔레그램을 통해 수많은 남성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거래하였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협박을 통해 불법하게 얻어낸 피해자 사진이 다중의 사람들에게 죄책감 없이 마치 놀이처럼 거래되고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N번방에 올라오는 피해자의 사진이 기존의 포르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기본 명제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아마도 N번방 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끔찍한 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N번방 사건은 일 대 일이 아니라 일 대 다수의 범죄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간을 도구로 받아들이는 다수의 개인이 얹고 가늘게 열기설기 엮여 거대한 범죄 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N번방 보도를 보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고부터 논의의 초점이 가해자 개인에게 맞춰진 느낌이다. 가해자가 평소에는 순한



양이었는데, 이럴테면 학교 성적도 좋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하고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도 했는데, 뒤에서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 행태는 사건의 일부분만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 더구나 우리의 인식과 문제제기가 '개인'에게 한정된다면, 왜곡된 성 관념과 약한 인간은 경시해도 된다는 일부 집단에 만연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범죄 보도의 경우, 공인이 아닌 이상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각해보면, 범죄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 범행 수법 및 범죄 피해가 중요한 것이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N번방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고려되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의 끝에 해당 사안을 결정했을 것이므로, 신상 공개 결정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되어 논의의 초점이 '피의자 개인'에게 옮겨가 버린 부분이 아쉽다. 개인에 대한 보도에 몰두하다 보면, '이 범죄에 돈을 지불하고 굴러가게 한 사회 집단'에 대한 진지한 비판과 성찰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개인보다는 집단의 범죄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된 팩트를 보도할 때 해당 보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그 기사는 더 나은 미래를 오게 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포르노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적어도 포르노는 협박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촬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N번방의 성 착취물과 명확히 다르다.

천하 경영의 포부



두강(杜康): 최초로 술을 만들었다는 사람의 이름이자, 술의 대명사로 쓰인다.
여기서는 술을 가리킨다.

산불염고, 해불염심(山不厭高, 海不厭深):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비유한다. “바다는 물을 거절하지
않아 그 크음을 이룰 수 있고, 산은 흙과 돌을 거절하지 않아 그
높음을 이룰 수 있다.(海不辭水, 故能成其大, 山不辭土石,
故能成其高.)” <<관자(管子)·형세해(形勢解)>>

토포(吐哺): 주(周)나라 주공(周公)은 인재가 찾아오면 밥을
먹다가도 뱉어내고 맞이했으며 머리를 감다가도
감싸고 나왔다고 한다. ‘토포악발(吐哺握髮)’의
고사이다.<<사기(史記)·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

단가행(短歌行)

짧은 노래

삼국 위(魏) 조조(曹操, 155-220)

對酒當歌, 人生幾何. 대주당가 인생기하
술을 대하면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인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譬如朝露, 去日苦多. 비여조로 거일고다
비유하자면 아침 이슬 같은데,
지나간 날이 괴롭게도 많구나.

慨當以慷, 憂思難忘. 개당이강 우사난망
감개가 일어 격양되니,
근심 걱정을 잊기 어렵다.

何以解憂, 唯有杜康. 하이해우 유유두강
무엇으로 근심을 풀 것인가,
오직 술이 있을 뿐이다.

(중략)

月明星稀, 烏鵲南飛. 월명성희 오작남비
달이 밝으니 별은 드문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날아온다.

繞樹三匝, 何枝可依? 우수삼잡 하지가의
나무를 여러 차례 선회하지만,
어느 가지가 의지할 만할까?

山不厭高, 海不厭深. 산불염고 해불염심
산은 높음을 싫어하지 않고,
바다는 깊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周公吐哺, 天下歸心. 주공토포 천하귀심
주공은 (인재를 맞으러) 씹던 것을
뱉고 나왔으니,
천하가 마음으로 복종했네.



조조는 후한 말기 황건적(黃巾賊)의 난을 진압한 뒤에 원소(袁紹)와 여포(呂布) 등의 군벌을 물리치고 북방의 패권을 잡았다. 건안(建安) 13년(208년)에 승상(丞相)에 올랐고 21년에 위왕(魏王)에 봉해졌다.

<단가행(短歌行)>은 한대(漢代) 악곡의 이름이다. 가행(歌行)은 '노래'라는 뜻의 '가(歌)'와 '체제가 자유롭다'는 뜻의 '행(行)'이 합해져 이루어진 시 형식의 하나이다. 조조는 그 이름을 빌려 자신의 회포를 밝혔는데, '짧은 노래'라는 이름과는 달리 여덟 구절씩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장부로서의 큰 뜻과 결의를 보인 시로, 포부와 기개가 약동함을 느낄 수 있다. 그중 시인의 의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첫째 단락과 넷째 단락을 소개한다.

첫째 단락에서는 짧은 인생에서 수많은 난리를 겪은 장수의 감개에 젖은 모습을 서술했다. 전란을 마무리하고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는 도입부이다. 목표는 요원한 듯하고 세월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와 셋째 단락에서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훌륭한 인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서술했다.

넷째 단락에서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의 네 구절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인재들이 방향하면서 의탁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까막까치의 배회로 비유했다. 마지막 네 구절에서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비유로 들면서 인재 영입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주공에 자신을 비견하면서 인재 수용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공이 훌륭한 인재를 맞아해 주나라를 안정시킨 것처럼 자신도 천하를 통일하여 안정된 세상을 이루겠다는 포부이다.

이 시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대풍가(大風歌)>와 의경이 비슷하다. 유방은 초한전쟁(楚漢戰爭)의 승리라는 대업을 이룬 뒤 고향 패현(沛縣)을 찾아가 어른들과 젊은이들을 초대한 술자리에서 <대풍가(大風歌)>를 불렀다. 대업을 이루었으니 훌륭한 인재를 얻어 천하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大風起兮雲飛揚.

큰 바람 일어나니 구름이 날아오른다.

威加海內兮歸故鄉.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安得猛士兮守四方.

어떻게 용맹한 인재를 얻어 사방을 지킬 것인가.

바람이 일고 구름이 나는 것으로 진(秦)나라 말기에 못 영웅들이 일어난 형세를 비유했다. 이어 천하를 통일하고 금의환향했음을 묘사한 뒤 마지막 구절에서 현명한 인재에 대한 갈망과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조는 당시에 천하를 통일하지도, 전쟁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처지였다. 삼국이 정립(鼎立)한 형세에서 적벽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런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상황에서 <대풍가>의 경지를 희망하면서 <단가행>을 지은 것이다.

조직 경영의 성공은 훌륭한 인재를 얻는 데에 있다. 조조는 말하기를, “인재가 한 쪽의 단점이 있다고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士有偏短, 庸可廢乎)”라고 하였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온 인재 등용의 원칙이 ‘오직 재능을 지닌 자만을 등용한다[유재시거(唯才是擧)]’이다.

주공을 모델로 삼겠다고 한 그는 실제로도 인재를 널리 구했다. 한 가지 예로, 원소(袁紹)의 막부에 있던 진림(陳琳)이 자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글[<위원소격예주(爲袁紹檄豫州)>]을 썼지만 원소를 물리친 뒤에 그를 용서하여 자신의 휘하에 둔 일을 들 수 있다. 조조의 <단가행>은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특히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 참고할 만하다.



청녹색, 우리가 아껴야 할 선량한 색상

청녹색 천상병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무들은 녹색이고
하느님은 청녹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청녹색은
사람의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이 유익한 빛깔을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은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에서

요즘 사람들처럼 색상을 과감하고도 자유분방하게 표출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마치 색상이 폭발한다 혹은 용출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만큼 현시대의 사람들은 색상에 대하여 가졌던 기존의 경계와 억압을 해체하고 넘어서었습니다. 이른바 색채의 해방과 창조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색상의 세계를 화려하게 창조한다고 하더라도 천지우주, 아니 천지자연의 그것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묘용(妙用)에 속하는 천지우주와 천지자연의 색채 연출은 무한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이 지구라는 별 속의 인간 종인 우리 현생인류에게는 신의 축복처럼 가시권 속에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색이 질서 있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제한된, 그러나 아름다운 색상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놀라운 상상력을 가동시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열어갑니다.

천상병(1930-1993) 시인의 시 속에는 ‘녹색’에 관한 시적 감성과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서울의 북쪽 너머, 의정부를 따라 내려온 수락산 자락과 그 산자락 아래에 있는 그의 작은 집을 지극히 얘기하면서 때론 자부심까지도 드러냅니다.

천상병 시인이 세속 생활인의 자격을 자진반납하고 아내의 인사동 찻집(<귀천>)에 의지하여 살아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수락산 자락과 그 산자락 아래의 작은 집에서 ‘프라이드’까지 느낀 것은 바로 ‘녹색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수락산은 그를 ‘녹색 부자’로 만들어주었고, 그 산자락 아래의 작은 집 뜨락은 그에게 ‘녹색 행복인’을 자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의 시 <청록색>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더욱 입체적으로 실감

을 주며 다가옵니다. 녹색에서, 아니 청색과 녹색에서, 아니 청록색에서 남다른 천지의 이치와 생의 기쁨 및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천상병의 시는 단순한 듯하나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이 시에서 전하듯이 지구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릅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들녘과 산과 나무들은 녹색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느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어린이들의 어법으로 천진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청색과 녹색, 아니 청록색이야말로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빛깔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들의 눈을 언급하면서 청록색은 인간들의 눈에 아주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실로 모든 색상은 다 등가의 평등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녹색, 아니 청록색에 이토록 애정을 보내는 것은 청록색이야말로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생명의 색상이며, 인간들이 인지하는 무지개색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을 포용하며 이어주는 중도성(中道性)의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빨강에서 시작되어 보라색으로 끝나는 무지개 색상의 한 중간에서 자신을 열어놓고 포용하는 색상이 바로 청록색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런 유익한 중도성의 색상으로 우리들의 세상이 가득 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의 마지막 연을 마칩니다. 너무나도 탁하고 거친 인간세상을 청록색으로 치유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살아 있음과 살려냄의 표상인 푸른색과 녹색과 청록색은 이 지구별의 ‘선량한’ 색상들입니다. 그런 색상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어서 우리들 모두의 나날이 6월의 청록빛 산하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치다

미스트랄*이 강하게 불던 날, 너는 죽으려고 했다.

생애 처음 만나는 지중해였다. 너는 늘 지중해를 그리워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삼키면서. 지중해, 라고 되닐 때마다 너의 심장은 북을 울렸다. 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 진동이 너를 휘감았다. 그냥 땅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의 북소리와 핏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동은 가짜가 아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차를 렌트하여 사흘을 달린 후 너는 그곳에 도착했다. 14만 헥타르에 이르는 론 강의 삼각주, 습지와 초원과 모래언덕 사이로 하얀 소금산이 솟아 있는 카마르그, 그 안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의 이름은 레 생트 마리 드 라메르였다. 고단한 생의 종점에서 만날 법한, 제법 로맨틱한 이름이라고 너는 생각했다.

너는 낡은 슈트케이스를 끌고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에 들어섰다.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노란색 테라스가 종종 늘어서 있는 이층건물이었다. 프런트데스크를 지키고 있던 젊은 남자는 바닷바람에 보기 좋게 그을린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으며 너를 맞았다. 낯선 외국인인 너에게 남자는 두 개의 열쇠

를 건네며 말했다.

- 하나는 방 열쇠, 다른 하나는 호텔 정문 열쇠. 저녁 여덟 시 이후에는 나 여기 없어서 문을 못 열어줘. 그러니까 직접 열고 들어와.

카마르그 늪지대에 해가 지는 풍경, 그것이야말로 네 인생의 마지막과 꼭 어울리는 것이라고 너는 믿었다. 하지만 둥글고 붉은 해는 하늘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너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하릴없이 거리를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 광장이 열리고 양증맞은 가게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시장이 보였다.

너는 네 인생처럼 시고 찬 레몬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두고 색색가지 가게들을 들락거렸다. 죽을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필요한 기념품은 없었지만, 늪지대를 오가는 홍학, 카우보이를 태우고 석양의 초원을 질주하는 검은 소, 햇살에 빛나는 소금산을 담은 엽서 몇 장 정도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았다.

걸음의 속도를 줄여 마지막 가게를 나온 너는, 심장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잠시 쉬기로 했다. 어느 카페의 야외테이블에 앉아, 너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네 죽음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세 사람에게 엽서를 써야 했다.

- 일생 동안 나는 삶을 위해 싸워왔어요.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일을 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 위해 마음의 가지를 쳐냈어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뜨겁게 애원하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차가운 말을 쏟아냈어요. 막힌 곳을 뚫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고장 난 것을 고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맞추는 일에 진력이 났어요. 나는 이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

할 말을 고르느라 네가 엽서에서 잠시 손을 뗐을 때, 바다로부터 미스트랄이 불어왔다. 바람은 엽서를 낚아채어 지중해 한가운데로 향했다. 너는 멍하니 날아가는 엽서를, 카페 테라스에서 펄럭이는 깃발들을, 손사래 치듯 팔랑이는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어차피 모든 고백은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므로,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너는 생각했다.



사진 : 황경신, <Camargue 풍경>

카마르그 국립공원 살랭 드 지로는 높이 7~8미터에 이르는, 소금의 결정체들로 만들어진 소금산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다. 늪지대로 향하던 너의 등을 떠밀어 그곳에 이르게 한 것도 바람이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소금의 알갱이가 섞여 있었다. 눈을 깜박이던 너는 간이휴게소를 발견했다. 지친 여행자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너는 지붕을 고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고치는 사람, 하고 너는 소리 내어 말해보았다. 낡거나 고장이 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는 사람. 그릇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는 사람. 혹은 지중해의 푸른 하늘을 향해 놓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

그때 너는 깨달았다. 너에게는 돌려주어야 할 열쇠가 있다

는 사실을, 아직 쓰지 않은 두 장의 엽서가 남았다는 사실을, 바람은 너를 세상으로부터 내몰려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길로 되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죽으려고 한다는 건 살려고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삶은 고치지 못해도 지붕은 고칠 수 있다.

그날 저녁, 너는 늪지대의 노을을 보는 대신, 레스토랑에 들어가 부야베스와 화이트와인을 주문했다. 프로방스 어부들이 팔고 남은 생선으로 만들었던, 새우, 게, 붕장어, 대구, 농어, 아귀, 뱀장어, 홍합, 사프란, 마늘, 토마토, 양파, 파슬리, 월계수잎, 올리브유가 온통 뒤섞인 따뜻한 요리가 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고치는 수고를 기꺼이 떠안을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든든하게.

*미스트랄 : 프랑스의 론강을 따라 리옹만으로 부는 강한 북풍. 론강의 삼각 지대인 프로방스에서 불어오는 서북풍과 뒤흔스 계곡에서 불어오는 동북풍이 합류하는 주변의 바람이 가장 강하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불편할 진실, 다크 워터스

보면서 화가 치미는 영화가 있다. 이기적인 인물, 파렴치한 기업, 무능한 정부,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그렇다.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면 분노게이지는 몇 배로 높아진다.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골치

아픈 세상사에 대해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관객들에게 이런 영화는 기피 대상이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불편한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야 한다. 토드 헤인즈 감독이 연출하고 마크 러팔로와 앤 해서웨이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국에 개봉해(3월 11일) 큰 호응을 얻지 못한(관객수 12만 명) '다크 워터스'도 그런 작품 중 하나다. 마크 러팔로가 등장하는 '어벤져스' 시리즈, 앤 해서웨이가 나왔던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열광시켰던가. '다크 워터스'도 주제의 중요성이나 작품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런 반응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

1998년, '롭 빌렛'(마크 러팔로)은 태프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한다. 그러나 시골 출신에다 대학도, 로스쿨도 이름 없는 곳을 나온 그의 입지는 좁은 편이다. 기업을 로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롭은 할머니의 지인으로부터 환경오염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롭은 어릴 때 가끔 놀러갔던 농장에서 하얗게 변해버린 개천의 돌들과 수많은 젖소들의 무덤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갈등할 만도 하건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듀폰'사가 그동안 벌여왔던 일들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한다.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 중 하나인 듀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화학물질, PFOA를 가정용품에 적용시킨다. 물에 반발성이 있는 이 물질은 C8이라는 이름으로 프라이팬을 비롯한 주방도구와 콘택트렌즈, 유아 매트 등 생활용품에 두루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C8은 독성이 강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이었고, 그 때문에 듀폰의 공장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거나 장애아를 낳는 등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근처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떼죽음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듀폰은 C8의 해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40년 동안이나 은폐해왔으며, 소송 중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독성 물질을 전 세계인들의 인체에 축적시킨 주된 장본인이 그들이라는 끔찍한 사실 앞에서 말이다. 듀폰사에 부과된 벌금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사실상 조족지혈과도 같다.

영화는 롭의 지난한 싸움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듀폰의 범죄를 입증해줄 관계자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롭이 진실에 접근할수록 주변의 시선은 대개 못마땅하지만 하다. 유일한 지원군인 로펌의 상관은 롭을 관중 취급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러서 미국인들이 변호사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게 전 세계 시민운동의 불씨가 되는 거라구. 우린 듀폰을 잡고 싶어 해야지!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고!"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마크 러팔로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이 작품에 참여했다. '워터 디펜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깨끗한 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가 '다크 워터스'에 출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늘 외롭고 때로 답답해하며, 종종 좌절하면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롭의 모습에는 생명력이 가득하다. 배우의 실제 모습과 캐릭터가 일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다크 워터스'에서 경험할 수 있다.

거의 천국과도 같은 나의 고향, 웨스트 버지니아!

(중략)

그 곳 고향의 시골길로 나를 데려다 주오

엄마처럼 포근한 산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고향으로 말이에요.

'다크 워터스'에서 롭 어머니의 고향이자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웨스트 버지니아는 존 덴버의 명곡, 'Take Me Home, Country Road'에 등장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다. 가본 적은 없지만, 흙길의 풋풋한 냄새와 눈이 시리도록 파란 나뭇잎들이 절로 눈 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이 노래의 배경이 화학물질로 더럽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슬픔이 앞선다. 부디 3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롭처럼 이곳에서 유년기의 추억을 쌓아가는 건강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기를,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세상이 되기를 빌어 본다.



위원회 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채원호, 이하 “선심위”)가 5월 15일 약 5개월간의 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불공정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한 선심위는 자체심의 안건 122건을 심의해 116건의 제재결정을 내리는 등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5월 29일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를 수록한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위원 동정

최승재 위원,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발제

최승재 위원(서울제8중재부,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4월 28일 한국 기업법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법제 비교·분석 및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의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김경희 위원,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위원 감사패 수여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4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 선포식에서 준칙 제정 위원으로 활동하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안차수 위원, <2020 총선 보도 경남지역 토론회> 참석

안차수 위원(경남중재부,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5월 14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울산기자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남지역 언론사 총선 보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 위원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언론-시민사회-전문가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여러분은 주로 뉴스를 어디서 보세요?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를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죠.

실제로 한 조사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47.1%)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도 전년보다 두 배 가량 상승(12%)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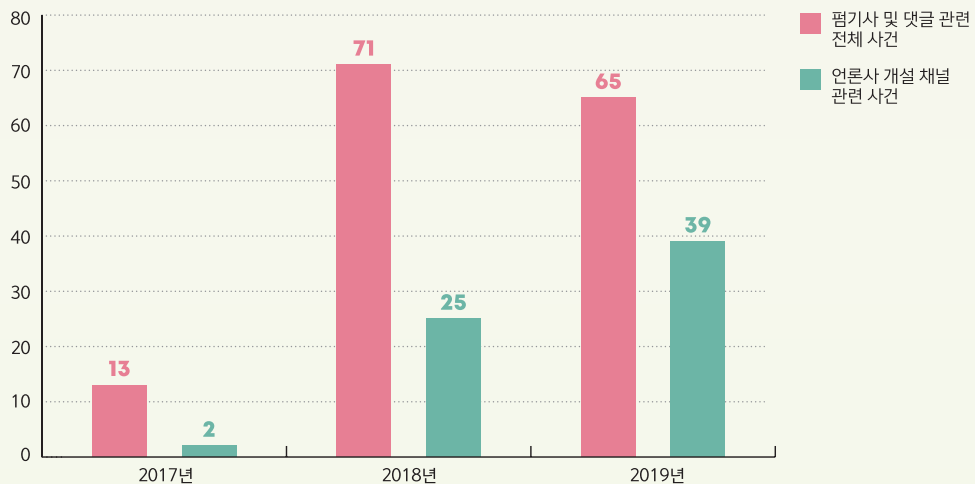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지요.

위원회 언론분쟁도 변화하는 뉴스 이용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언론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사를 유통하다보니 인격권 침해 기사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는 언론조정대상해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조정심리 중 원 기사를 생산한 매체를 설득,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유통된 기사(펌기사) 및 댓글에 대한 피해를 일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펌기사 및 댓글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7년 13건, 2018년 71건, 2019년 65건이며, 이 가운데 언론사가 유튜브 및 SNS 내 자사 채널에 유통한 기사에 대한 구제가 이뤄진 사례는 2017년 2건, 2018년 25건, 2019년 39건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만 합니다.



펌기사 및 댓글 피해 관련 조정현황

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를 통한 권리침해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수용자 조사>, 2019

항상 듣고 있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곁에는 언제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